

■ 2016학년도 서울대 수시 일반전형 구술고사 관련 실태 발표 기자회견(2016. 6. 22.)

서울대는 ‘가짜 학생부종합전형’의 대표적인 요소인 구술고사를 2017학년도부터 즉각 폐지하십시오.

■ 일시 : 2016. 6. 22. 10시 30분

■ 주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장소 : 서울대학교 정문

서울대는 ‘가짜 학생부 종합전형’의 대표적인 사례인 구술고사를 2017학년도부터 즉각 폐지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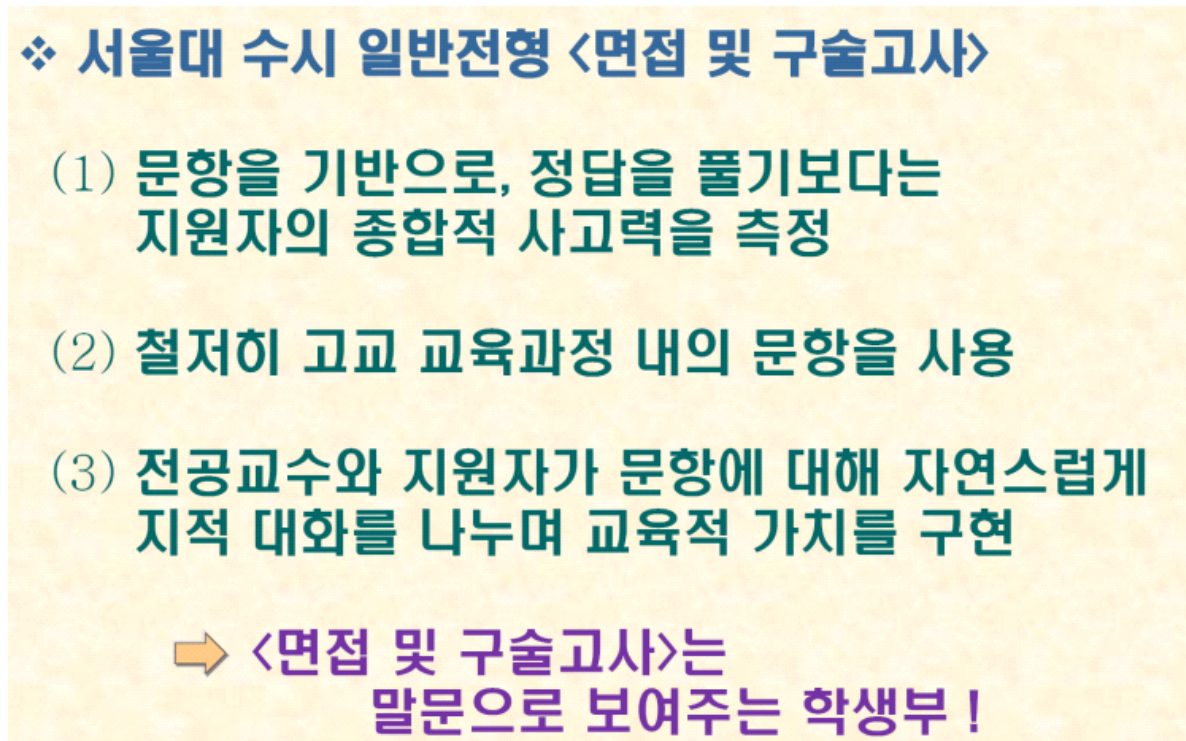
-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두 차례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대 수시 일반전형에서 실시하는 구술고사가 ‘가짜 학생부종합전형’의 대표적인 사례로 규정한 바 있음.
- ▲ 그 이유는 서울대 면접이 일반적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실시되는 자기소개서와 학생부 내용에 근거한 개별 질문이 아닌 교과 지식을 묻는 구술고사, 즉 말로 하는 논술고사나 마찬가지로이며 과거 특기자전형의 전형 방법과 동일하기 때문임.
- ▲ 또한 구술고사의 문항이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포함하고 있어 고교 대비가 불가능하고 사교육 유발 요인이 강함.
- ▲ 이에 25명의 수학,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교과 담당 교사와 함께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분석 작업을 진행.
- ▲ 분석 결과 수학·물리·화학·생명과학·지구과학 교과의 34%가 교육과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됨.
- ▲ 가장 많은 학생이 응시하는 수학 교과의 경우 약 85%가 교육과정 미준수, 화학 교과도 54.5%로 절반 이상의 문제가 교육과정 미준수로 선행교육 규제법 위반.
- ▲ 서울대 뿐 아니라 타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에서도 구술고사와 같은 교과 지식을 묻는 면접을 폐지하고 자기소개서 학생부 기반 개별 면접으로 전환해야 할 것임.

본 단체는 지난 4월 두 차례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대입 수시에서 실시되는 학생부종합전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대가 수시 일반전형 2단계에서 치르는 구술고사는 학생부종합전형 취지에 역행하는 ‘가짜 학생부 종합전형’의 대표적인 사례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대 구술고사를 이처럼 규정한 이유는 면접 과정이 일반적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실시되는 자기소개서와 학생부를 기반으로 질문하는 개별 면접이 아닌 교과 지식을 묻는 말로 하는 논술고사나 마찬가지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문제의 수준이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나 학교 정규 수업으로 대비할 수 없어 사교육 유발 요인이 강하다는 문제제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대의 이같은 전형 운영은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학과 고교간 연계를 강화한다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 것이며, 나아가서는 대학 입학전형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선행교육 규제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서울대는 세 가지 근거를 제시하며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구술고사가 지식 기반의 정답을 말하기보다는 지원자의 사고력을 묻고 있으며, △철저히 고교 교육과정을 준수하였고, △전공교수와 문항에 대해 지적 대화를 나누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교육을 받지 않고 학교 교육과정만으로 대비가 충분하며 학생부종합전형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그림1] '면접 및 구술고사'에 대한 서울대의 자체 평가



❖ 서울대 수시 일반전형 <면접 및 구술고사>

- (1) **문항을 기반으로, 정답을 풀기보다는 지원자의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
- (2) **철저히 고교 교육과정 내의 문항을 사용**
- (3) **전공교수와 지원자가 문항에 대해 자연스럽게 지적 대화를 나누며 교육적 가치를 구현**

➔ **<면접 및 구술고사>는 말문으로 보여주는 학생부!**

자료 : '학생부종합전형 발전을 위한 고교-대학 연계 포럼(2016. 6. 15.)' 서울대 권오현 입학본부장 발제문 中

하지만 실제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고교 현장이 느끼는 체감은 이와 정반대로 문제의 수준이 고교 현장에서 대비할 수 없을 정도로 난해하며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사교육기관을 통한 유형 연습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서울대 구술고사 문항 분석과 함께 이를 대비하기 위한 학원 및 사교육 프로그램의 실태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문제 분석에는 수학,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교과를 가르치는 25명의 현장 교사가 참여해 2개월 간 2차에 걸친 검토와 교사 간담회를 통한 최종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학원 및 사교육 프로그램 실태 조사는 서울대 구술고사 대비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광고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수집했습니다.

■ 사실상 특기자전형 혹은 논술전형의 평가 요소로 간주해야 할 구술고사를 학생부종합전형에 사용하는 서울대 일반전형은 ‘가짜 학생부종합전형’의 대표적인 사례임.

현재 서울대 구술고사는 2005년에 도입해서 2012학년도까지 시행한 특기자전형의 평가요소를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표1]의 특기자전형 운영방법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자연계열의 경우는 해당 전공에 따라 지정과목과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받은 학생들은 과목당 30분 내외의 답변 시간에 풀이를 준비하고 전공 교수 앞에서 15분 내외로 구술하는 방식입니다. 1단계 서류전형을 통과한 1.5배수에서 3배수의 학생들이 치르는 2단계 전형으로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서울대는 특기자전형이 일반고에서 대비하기 어렵다는 문제제기를 수용해 2013학년도부터는 일반전형으로 명칭을 바꾸었으나 과거 특기자전형의 대표적인 평가 요소인 구술고사의 방법을 2017학년도에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림2]에서 볼 수 있듯 모집단위 별로 응시할 교과를 지정해 주고 30분 내외 혹은 45분 내외의 답변 준비 시간을 준 후 15분 내외로 전공교수 앞에서 답하도록 하는 방식이 과거 특기자전형과 전혀 차이를 느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서울대 일반전형을 학생부종합전형이라고 서울대가 스스로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일입니다.

[표1] 2012학년도 서울대 특기자전형 자연계열 ‘면접 및 구술고사’ 내용 및 방법

모집단위		지정과목	선택과목	면접시간	답변준비시간
자 과 대 연 학 학	수 리 과 학 부· 통 계 학 과 군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중 1과목	과목별 15분 내외	과목별 30분 내외
	물 리 천 문 학 부	물리	수학, 화학, 생물, 지구과학 중 1과목		
	화 학 부	화학	수학, 물리, 생물, 지구과학 중 1과목		
	생 명 과 학 부	생물	수학, 물리, 화학, 지구과학 중 1과목		
	지 구 환 경 과 학 부	지구과학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중 1과목		
	의 예 과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중 1과목		
	수 의 예 과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중 1과목		
간 호 대 학		물리, 화학, 생물 중 1과목	15분 내외	30분 내외	
공 과 대 학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중 1과목	과목별 15분 내외	과목별 30분 내외	
공과대학건축학과건축학전공	수학	전공적성*	15분 내외	30분 내외	
농업생명과학대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중 1과목			
사범대학	수 학 교 육 과	수학			
	과 학 교 육 계 열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중 1과목
	물 리 교 육	물리			
지 구 과 학 교 육	지구과학				
생 활 과 학 대 학		물리, 화학, 생물 중 1과목			

자료 : 서울대 2012학년도 수시모집 안내

[그림2] 2017학년도 서울대 일반전형 ‘면접 및 구술고사’ 내용 및 방법

모집단위		평가내용	면접시간	답변 준비시간	
사회 과학 대학	인문대학 전 모집단위 (경제학부 제외)	· 인문학, 사회과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 능력 평가 · 영어 또는 한자 활용 가능	15분 내외	30분 내외	
	경제학부	· 사회과학, 수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 평가 · 영어 또는 한자 활용 가능			
자연 과학 대학	수리과학부	· 수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 평가		45분 내외	
	통계학과	· 통계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 평가			
	물라천문학부	물리학전공			· 물리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 평가
		천문학전공			· 천문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 평가
	화학부	· 화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 평가			
	생명과학부	· 생명과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 평가			
지구환경과학부	· 지구과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 평가				
간호대학	2가지 유형 중 택1	· 화학, 생명과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 평가		45분 내외	
		· 인문학, 사회과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 평가 · 영어 또는 한자 활용 가능	30분 내외		
경영대학	· 사회과학, 수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 평가 · 영어 또는 한자 활용 가능	30분 내외			
공과대학	· 수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 평가	45분 내외			

자료 : 서울대 2017학년도 수시모집 안내

서울대 구술고사는 일반적인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치르는 면접과도 매우 상이하며 교육부의 방침과도 괴리가 있습니다. 일반전형은 학생부종합전형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1단계 서류전형으로 2~3배수를 선발한 후 2단계 면접을 치르고 있으나 이때 치러지는 면접은 대개 학생이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한 개별면접이거나 교과 지식과 무관한 인성면접입니다. 또한 교육부는 2013년 9월 24일 발표한 ‘2015·2016 대입제도 확정안’에서 교과중심의 문제풀이식 구술형 면접을 지양하고 학생부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대 구술고사는 교육부의 방침에 역행하는 처사인 것입니다.

■ 서울대는 철저히 교육과정을 준수했다고 밝혔으나 교육과정 준수 여부 분석 결과 수학·물리·화학·생명과학·지구과학 문항의 34%가 교육과정 벗어나 선행교육 규제법 위반.

현재 각 대학이 치르는 논술고사·면접 및 구술고사와 같은 대학별고사는 철저히 고교 교육과정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교 교육과정을 준수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학교 대비 가능한 문항 출제로 수험생 부담을 줄이고 사교육 유발을 억제하는 대학의 책무성 실천을 뜻합니다. 다른 하나는 2014년 9월부터 시행된 선행교육 규제법을 준수했는지의 여부입니다. 이는 학생부를 대입전형 중심 자료로 활용해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학

생부종합전형의 도입 취지와도 궤가 같습니다. 만약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실시된 면접 및 구술고사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출제되었다면 이는 해당 전형의 취지를 저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사교육걱정은 수학·물리·화학·생명과학·지구과학 현장 교사 25명을 모집해 해당 교과목의 서울대 구술고사 문제의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분석했습니다.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는 ‘2007개정 교육과정’을 적용받는 수학의 경우는 ‘교육과정 내용 체계’를,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받는 물리·화학·생명과학·지구과학은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준거로 삼았습니다. 초·중등교육법 23조 2항에 의하면 학교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내용체계 및 성취기준에 없거나 이를 응용한 문제는 교육과정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교과서·EBS 수능 연계 교재·수능 문제의 소재로 사용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검증 없이 교육과정을 준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본 단체는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분석에 참여한 교사에게 세 가지 기준에 답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준수했는가?
 둘째, 문제에 대학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않은가?
 셋째, 학교 수업으로 대비가 가능한가?

이러한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수학·물리·화학·생명과학·지구과학 교과 문제의 34%(총 53 문항 중 18문항)가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또한 제시문과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안에 대학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문항이 28.3%(53항 중 15문항)나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대비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은 문제도 32%나 되었습니다. 특히 분석 교사들의 의견에 의하면 서울대 구술고사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방과후학교로 대비반을 개설해야 하며, 대비반을 통해 준비하더라도 풀 수 없는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서울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사교육기관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도 다수 있었습니다. 이는 고교-대학간 연계를 강화한다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취지에 위배된 것이며 선행교육 규제법을 위반한 출제 행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표3] 서울대 구술고사 문항 교육과정 준수 여부(해당건수/전체건수)

구분	수학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계
성취기준 미준수 여부	11/13 (84.6%)	0/7 (0%)	6/11 (54.5%)	0/11 (0%)	1/11 (9.1%)	18/53 (34.0%)
대학과정 포함 여부	8/13 (61.5%)	0/7 (0%)	6/11 (54.5%)	1/11 (9.1%)	0/11 (0%)	15/53 (28.3%)
학교대비 불가능 여부	11/13 (84.6%)	0/7 (0%)	4/11 (36.4%)	1/11 (9.1%)	1/11 (9.1%)	17/53 (32.1%)

■ 일반전형에서 가장 많은 학생이 응시하는 수학 교과의 경우 약 85%가 교육과정 미준수, 화학 교과도 54.5%로 절반 이상의 문제가 교육과정 미준수로 선행교육 규제법 위반.

일반전형 모집인원의 44.8%(일반전형 모집인원 1,642명, 수학 교과를 응시해야 하는 학과의 모집인원은 735명임)로 가장 많은 모집단위에서 신입생 선발을 위해 활용하는 수학 교과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 출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문항의 83.6%(13문항 중 11문항)가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미준수했으며, 대학과정이 포함된 문제가 61.5%(13문항 중 8문항), 학교에서 대비할 수 없는 문제도 84.6%(13문항 중 11문항)나 되었습니다. 분석 교사 중 다수가 이와 같은 문제는 고교교육과정에 접하기 쉽지 않은 문제들로 깊은 이해와 사고가 요구되는 문제들이며 학생들이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문 대비학원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대도시가 아닌 지역의 교사는 “우리 학교와 같이 시골에 있어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여건에서는 방과후학교나 주말을 이용해서 이를 대비한 수업을 해줘야만 한다. 하지만 너무나 가르치기가 어렵다”고 말하며 구술교사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림3] 서울대 구술교사 수학 교과 활용 모집단위

활용 모집단위	활용 문항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오전), 경영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 생활과학대학(소비자이동학부, 의류학과), 자유전공학부(수학1-오전)	[문제 1], [문제 2]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오후), 자유전공학부(수학 1-오후)	[문제 3], [문제 4]
자연과학대학(수리과학부, 통계학과), 공과대학,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문제 2], [문제 5], [문제 6]
농업생명과학대학(조경 · 지역시스템공학부, 바이오시스템 · 소재학부), 자유전공학부(수학 2)	[문제 2], [문제 5]

자료 출처 : ‘서울대학교 입학본부 아로리’ (<http://snuarori.snu.ac.kr/>)

실례로 수학 3번 문제의 경우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서 다루지 않는 계단식이라는 것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이것은 대학과정의 해석학이나 정수론에서 다루는 연분수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고교에서 사용하는 기호가 아닌 $\langle b_1, b_2, \dots, b_s \rangle$ 라는 기호를 사용하고 있으며, 유리수

표현으로 $x = b_1 - \frac{1}{b_2 - \frac{1}{\dots - \frac{1}{b_{s-1} - \frac{1}{b_s}}}}$ 와 같은 번분수식은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또한 교육과정 성취기준은 ‘①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이해한다.’ 정도이며, 점화식을 해결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는데 이상한 점화식을 해결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림4] 서울대 구술고사 수학 3번의 세 문제

문제 3. 1 보다 큰 유리수 x 가

$$x = b_1 - \frac{1}{b_2 - \frac{1}{b_3 - \frac{1}{\ddots - \frac{1}{b_{s-1} - \frac{1}{b_s}}}}} \quad (\text{단, } b_1, \dots, b_s \text{ 는 } 1 \text{ 보다 큰 자연수이다.})$$

로 표현되면, $x = \langle b_1, b_2, \dots, b_s \rangle$ 로 나타내고 $\langle b_1, b_2, \dots, b_s \rangle$ 를 x 의 계단식이라고 하자.

예를 들어, $\frac{25}{9} = 3 - \frac{1}{5 - \frac{1}{2}}$ 이므로 $\frac{25}{9}$ 의 계단식은 $\langle 3, 5, 2 \rangle$ 이다.

3-1. 자연수 $p > q$ 에 대하여 $\frac{p}{q}$ 의 계단식 $\langle b_1, b_2, \dots, b_s \rangle$ 가 존재함을 보이시오.

3-2. 1 보다 큰 자연수 p 에 대하여 $\frac{p^2}{p-1}$ 의 계단식을 구하시오.

3-3. 문제 1-2에서 구한 $\frac{p^2}{p-1}$ 의 계단식 $\langle b_1, b_2, \dots, b_s \rangle$ 에 대하여,
유리수 $q_0, q_1, q_2, \dots, q_{s+1}$ 이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고 하자.

(i) $q_0 = 2, q_{s+1} = 1$

(ii) $q_{i-1} + q_{i+1} = b_i q_i \quad (1 \leq i \leq s)$

이 때, q_1 을 구하시오.

자료 출처 : '서울대학교 입학본부 아로리' (<http://snuarori.snu.ac.kr/>)

화학 교과도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 출제가 심각했습니다.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미준수한 문제와 대학과정을 포함한 문제가 54.5%(11문항 중 6문항)였으며, 학교에서 대비 불가능한 문제도 34.6%(11문항 중 4문항)나 되었습니다.

■ 사고력을 묻는 시험으로 사교육을 통한 대비가 소용없다는 서울대의 주장은 구술고사 대비학원이 성행하는 현실과 입시에 대한 수험생 고통을 외면하는 발언으로 대학의 책무성을 저버리는 행위임.

서울대는 구술고사와 관련해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사교육을 통한 대비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사교육 없이 학교 교육만으로 대비해서 합격한 학생들의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수험생들의 입시 현실을 외면하는 처사입니다. 일반고의 경우 서울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은 극소수이고 학교도 이들을 위한 대비반을 꾸리기 힘든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학생들이 서울대 면접 대비 혹은 구술고사 대비 학원을 전전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유명 인강사이트와 재수종합반 학원, 상당수의 입시 대비 학원이 ‘서울대 논·구술 특강’, ‘구술면접 강좌’, ‘서울대 일반전형 심층면접 대비반’ 등의 이름으로 강좌를 개설하고 있으며 철저한 대비만이 합격의 지름길이며 합격률 90%를 보장한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림5] 메가스터디의 구술면접 대비 강좌

출제의도를 꿰뚫는 메가스터디 구술면접 강좌

다양한 수시전형에서 폭넓게 적용되는 구술면접 평가 기본 소양부터 학업 적성 구술까지 준비된 구술면접으로 합격을 선점하라!

SKY 대학 주요 전형별 구술면접 평가요소

제시문에 대한 답변으로 인재상에 적합한지 성실성, 리더십을 평가하는 구술면접! 기본 소양부터 대학별 출제 경향까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서울대학교 일반전형 지역균형전형	- 학업준비도, 인성 및 의사소통능력, 서류의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개인별 심층면접 실시 - 제출서류를 토대로 서류내용과 기본적인 학업 소양을 확인함 - 모집단위(전공) 관련 제시문 통한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 평가
고려대학교 학교장추천전형 융합형인재전형	- 본교 인재상에 부합하는 기본 역량 갖추고 있는지 심층적으로 평가함 - 제시문에 대한 질문 통해 지원자의 성실성, 리더십, 공선사후정신, 전공적합성, 창의성을 평가함 - 제출 서류 내용을 심층적으로 확인하고, 제시문에 대한 질문 통해 창의적, 융합적 사고능력을 확인함
연세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특기자전형	- 대학 수학에 필요한 인문학적/사회과학적 소양 및 심층사고능력 평가 면접 - 학습역량 평가면접 : 학업수행능력, 공학인재로서의 자질, 논리적 사고능력 등을 종합적 판단 위한 면접 - 융합적합성 평가면접 : 창의력,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일정한 주제에 대하여 응시자 간 토론 면접

자료 출처: 메가스터디 홈페이지(<http://www.megastudy.net/>)

[그림6] 대치동 미래탐구 학원의 서울대 구술고사(인문계열) 대비 프로그램

미래탐구 국어*영어*인문논술*독서*한국사 2016년 7~8월 강좌 안내



7~8월 수시 인문 논구술 프로그램 안내

강좌명	담당T	요일/시간	강좌 특징	개강
수시대비 인문논술 정규반	 김희수 고려대 철학 서울대 석사	수/오후6-10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실전으로의 연결 ① 실전 모의고사를 통한 실전 글쓰기와 첨삭을 강조합니다. ② <모의고사+해제>를 반복함으로써 실전 논술고사에 대비합니다. ③ 배경 지식은 다양한 주제의 논술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증진시킵니다. ④ 대학이 선호하는 답안을 스스로 구조화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⑤ 매주 개인별 첨삭과 평가를 통해서 학생의 실력과 문제점을 파악합니다. ⑥ 모의고사 답안 결과에 따라서 개인 별로 필사 및 다시 쓰기 과제가 제시됩니다.	7/13
	 유재한 고려대 철학과	토/오후1-5	성서한 및 인서울 명문대 논술 집중 분석 ① 예외 수시 대학별 기출문제 실전 쓰기와 첨삭이 이루어집니다. ② 중위, 중상위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제시문 분석 훈련을 꼼꼼하고 정교하게 진행합니다. ③ 첨삭 후, 개인별로 필사 및 다시 쓰기 연습을 꾸준히 시켜 상위 5% 수준으로 논술 실력을 끌어올립니다.	7/9
	 김정웅 인문 수리논술 최고 전문가, 풍부한 컨텐츠	토/오후6-10	고려대 수시 인문 수리논술 대비 특강 인문 수리논술 4주 집중 대비 ▶ 정확한 개념 강의부터 꼼꼼한 첨삭까지 1:1 개별 관리 ▶ 인문 수리논술의 평가 기준과 답안 작성법 완벽 이해	7/9
고려대인문 수리논술	 김정웅 인문 수리논술 최고 전문가, 풍부한 컨텐츠	금/오전9:30-12:30	고려대 수시 인문 수리논술 대비 특강 인문 수리논술 4주 집중 대비 ▶ 정확한 개념 강의부터 꼼꼼한 첨삭까지 1:1 개별 관리 ▶ 인문 수리논술의 평가 기준과 답안 작성법 완벽 이해	7/22 (4회)
서울대심층 사회과학	 윤어일 (서울대 사회학박사 서울대심층 경력 14년차)	토일/오후2-5	서울대 심층구술 대치동 최강! 합격률 90% 이상! 서울대 수시 일반전형 심층 사회과학 면접 대비 이것이 서울대 사회과학 심층이다. 적중률 최고의 강의 사회과학 출제 예상 테마, 주제 정리를 통한 실전훈련 수강대상: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간호대학, 경영대학, 농경제대학, 사법대학, 소비자이동학부, 의류 학과, 자유전공학부 지원자 중 사회과학 심층면접을 대 비하고자 하는 학생	7/30 (4회)
서울대심층 인문학	 윤어일 (서울대 사회학박사 서울대심층 경력 14년차)	토일/오후6-9	서울대 심층구술 대치동 최강! 합격률 90% 이상! 서울대 수시 일반전형 심층 인문학 면접 대비 이것이 서울대 인문학 심층이다. 적중률 최고의 강의 인문학 출제 예상 테마, 주제 정리를 통한 실전훈련 수강대상: 인문대학, 간호대학, 사법대학, 자유전공학부 지원자 중 인문학 심층면접을 대비하고자 하는 학생	7/30 (4회)
서울대심층 수학1	 배장운 (서울대 수학교수)	수/오후1:30-5:30 (30분 늦음)	서울대 수시 일반전형 심층 수학1 면접 대비 기술 및 출제 예상 훈련 (수학I 출제 범위: 수학II, 미적분I, 확률과 통계 등) 수강대상: 경제학부, 간호대학, 경영대학, 농경제사회학 부, 소비자이동학부, 의류학과, 자유전공학부 지원자 중 수학1 범위를 대비하고자 하는 학생	7/27 (3회)

※ 일정 및 개강 여부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학원으로 사전 문의 바랍니다.
※ 개인 및 팀 문의 T.02-538-3372 (미래탐구 고등관 인문 논구술팀)

자료 출처: 미래탐구학원 홈페이지(<http://www.mirae-academy.co.kr/>)

■ 2018학년도 대입에서 고려대, 연세대도 학생부종합전형 비율을 늘리고 면접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서울대 구술고사의 사례를 차용해서는 안 됨.

고려대는 수시모집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이 차지하는 비율을 2017학년도 24.6%에서 2018학년도 45.1%로 늘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논술전형이었던 일반전형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전환했습

니다. 또한 학생부교과전형이었던 학교장추천전형을 고교추천 I · II전형으로 분리하고 고교추천II전형은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운영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연세대도 수시모집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이 차지하는 비율을 2017학년도 20.2%(정원외 제외)에서 2018학년도 33.5%로 확대했습니다. 이는 2017학년도에 운영했던 학생부교과전형을 학생부종합전형 면접형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앞으로 실시될 고려대의 일반전형과 고교추천II전형, 연세대의 학생부종합전형 면접형에서 서울대의 사례처럼 면접을 말로 푸는 논술인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고사로 운영한다면 이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취지에 위배되는 ‘가짜 학생부종합전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연세대는 2018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의 ‘전형요소 및 반영 비율’ 내용에 면접과정에서 ‘학업역량 및 전공적합성’을 평가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바, 서울대와 유사한 전형을 운영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따라서 각 대학들은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치르는 면접에서 교과 지식을 묻는 구술고사를 폐지하고 자기소개서와 학생부를 기반으로 하는 개별면접으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도 학생의 사고력과 논리력 등 학업 잠재력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대학은 갖춰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부는 서울대 등 일부 대학의 전형을 철저히 분석해 구술고사와 같은 ‘가짜 학생부종합전형’의 요소를 엄금해야 할 것입니다.

■ 우리의요구

1. 서울대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취지에 위배하여, 공통 문항에 의한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고사를 2017학년도 대입부터 즉각 폐지하십시오.
2. 고려대와 연세대도 2018학년도 시행계획에서 밝힌 학생부종합전형의 면접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며 수험생 부담을 가중시키고 학교 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구술고사형 면접을 실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3. 교육부는 2017학년도 대입부터 구술고사를 실시하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란 명칭을 사용하는 대학에 대해서 전형 명칭을 변경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아울러 고교 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에서 이러한 ‘가짜 학생부 종합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을 평가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험생 부담이 가중되는 공통문항 면접을 서류면접으로 대체하도록 개선하십시오.

2016. 6. 22.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본 단체 정책대안연구소 구본창 정책2국장(02-797-4044, 내선 501)